논어 7편 술이 11장 · 쓰기 연습

子曰：「富而可求也，雖執鞭之士，吾亦爲之；如不可求，從吾所好。」

이 장의 글자를 문장 순서대로 따라 쓴 뒤, 바로 아래 빈칸에 써 보세요.

子 曰 富 而 可 求 也 雖 執 鞭 之 士

吾 亦 爲 之 如 不 可 求 從 吾 所 好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